

❖ 정부시책 ❖

시설투자용 外貨資金 차입한도 제한

정부는 기업이 금년 한햇동안 국산 또는 외국산 시설재를 구매·수입하기 위해 외화증권을 발행하고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기업당 국산의 경우 연간 2억달러로, 외국산의 경우 1억달러로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도규제는 또다른 외화자금 차입방법인 시설재 도입용 외화대출과 별도로 운영되는데 외화대출의 경우 한도가 없다.

정부는 또 기업이 해외자금 차입기회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외화차입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신청절차등을 거쳐 외화증권 발행예정자로, 또는 상업차관도입예정자로 선정된 후 6개월 내에 외화자금 차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업차관 도입 또는 해외증권 발행을 통해 국산 시설재를 구입할지라도 음식·오락업에 사용되는 시설재의 경우 불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증권발행 통첩'과 '상업차관 도입 인가

지침'의 일부를 개정,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재경원은 상업차관도입, 해외증권 발행 등의 기회를 업종별·기업별로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 기업별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들의 해외자금 차입신청액이 총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업별 한도내에서만 허용하고, 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차입수요액 전액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대기업·중소기업·정부투자기관·사회간접자본시설공공법인 등이 국산시설재를 구입키 위해 상업차관을 도입하고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20억달러(반기별 10억달러)로 정한 바 있다.

또 외국산 첨단시설재를 수입하기 위해 대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상업차관의 한도는 연간 10억달러(중소기업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로 설정한 바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한도배정을 위한 차입·발행예정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일부 개정, 평가기준중 자기자본비율, 국내금융기관 차입의존도, 국내증시조달의존도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의 경우 신설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립된지 3년 미만의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의 평균 재무구조지표를 해당기업의 지표로 간주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개정에 따라 국산시설재 구입 및 외국산 시설재 수입을 위해 외화증권 발행 또는 상업차관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등

은 기계공업진흥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2월 15일까지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 이전에 재경원장관에 신청된 것은 개정조치의 시행일인 2월 5일에 산업은행총재에게 신청된 것으로 간주, 다른 신청건과 같이 요건심사를 받게 된다.

수출유망품 市場情報 제공 강화

통상산업부는 연간 1천개 내외의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심층정보를 조사해 국내 관련 유망기업에 전파하기로 했다. 또 단위 투자규모 1천만달러, 단위 수출규모 10만달러 이상의 인콰이어리는 국내파트너를 발굴·알선해 성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입찰사업 100건을 선정, 입찰참여에 관한 제반활동을 측면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실질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업적 통상활동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상업적 통상활동이란 상품과 시장에 관한 심층 정보제공, 상품거래 알선, 무역과 투자 파트너 알선, 외국 관련기업과의 세부일정 주선, 사절단·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국

제입찰 사업에의 참여 지원 등 우리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통산부는 우선 상업적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KOTRA의 100개 무역관별로 연간 10개 내외 총 1천개의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해 시장전망, 유통채널과 같은 심층정보를 조사해 국내 관련기업에 집중·전파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또 거래 및 투자알선사업 강화를 위해 1차적으로 무역협회·KOTRA·대한상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에서 접수한 단위투자규모 1천만달러, 단위 수출규모 10만달러 이상의 인콰이어리는 국내파트너를 발굴·알선해 성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별도 관리키로 했다.

특히 국제입찰정보의 수집·전파 및 참여 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는 대형 입찰사업 100건을 선정, 적격 참가대상기업의 발굴과 입찰참여에 대한 행정지원 등 측면통상활동을 강화하고 연간 1,200건을 목표로 UN 등 국제기구 입찰정보를 수집·종합해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통상부는 또 정부차원의 통상활동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양자 통상협약시 우리 업계대표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국제입찰 또는 투자프로젝트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정부나 외국기업간 현안을 수렴해 우리기업의 상업적 이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지원 확대, 각종 해외파견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강화, 무역관의 중소기업지사화사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개정이유

지난 12월 12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중소기업물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함에 있어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1)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참가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규모 등이 포함된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토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한후,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급된 출연금이 용도외에 사용되는 때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출연금은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 계리
토록 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얻은 때
에는 일정액의 기술료를 상환하여 기술
개발의 재투자 자금으로 사용토록 함.
- 나. 대학등의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으
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기술지도사
업에 지원하는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기술혁신개발사업과 동
일한 방법으로 운용토록 준용규정을 둠.
- 다.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제한경
쟁물품의 지정 및 공고권한을 중소기업청
에 이관하되,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라.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증대
를 위하여 작성기관을 현행 43개 기관에
서 환경관리공단·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서울대학교병원등
14개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 마.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요

- 청을 받고 이를 조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 － 중소기업청장은 우선구매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부문을 자문·
지도하는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지도체제
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 1) 지도사의 기능 및 업무범위를 일부 추
가하고
- 2) 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실무수습을 의
무화 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도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
- 3) 지도사의 경력인정 기준으로 중소기업
청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써, 5년
이상 경영 및 기술지원업무에 종사한
자를 추가함.
- 4) 지도체계의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지도기관의 지정 및 철회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조정함.

有望中企 선정때 수출기업 優待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기업과 기
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우대받는다.

또 선정된 모든 유망중소기업에는 금융기

관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정
부의 각종 지원시책에서 우선 선정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망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유망중소기업 선정 모델을 개발해 60점 이상인 업체들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이 2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그동안 재무구조 위주의 평가 방식을 개선해 기술력의 비중을 30%로 하는 새 방식을 도입했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수출기업은 기존의 우대금리 적용 등의 지원 이외에 한국무역협회의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각종 수출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게 되며 이용수수료도 감면받게 된다.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만달러를 밑도는 기업가운데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무역실무교육에서 해외시장 개척 수준까지 종합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 수출사업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수출기업으로 육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기관 등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돼 지정받아도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중기청은 지난해까지 비금융기관에서 지정받은 유망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이 우대금리 적용을 기피해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신내규를 개정해 이같은 불이익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각종 자금지원 평가때 우대받고 산업기술정보원의 특허·시장정보를 지원받는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원, 외국인연수생·산업기능요원 배정, 단체수의계약물량 배정 등에서도 우대받는다.

중기청은 이번 활성화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86개 지원기관에 대해 내규에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3년부터 작년까지 31개 금융기관과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총 57개 기관에서 2,499개의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했다.

中企 ISO 14000 認證지도

중소기업청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 체제(ISO 14000시리즈) 인증을 획득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지도 프로그램의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 시범지도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환경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이 지도·자문·토론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도하며 해당분야의 기술지원에서 부터 관련 설비개체나 구입자금의 지원, 정보제공, 홍보 등까지 도와준다.

중기청은 2월 15일까지 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 추진여건을 심사한

뒤 50개사의 대상기업을 뽑을 예정이다.

지도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이다.

지도비용의 10%는 업체가 부담(하루에 1만3천원)하고 나머지 90%는 정부가 지원한다.

지도가 끝나면 ISO 14000 인증 획득을 위한 모의심사를 실시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추천해 준다.

전기제품 電磁波장해(EMI) 기준 적용

올해 전자교류개폐기 등 20개 전기제품에 대한 전자파장해(EMI) 기준이 제정돼 적용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연내 20개 전기제품의 KS규격에 EMI관련 규격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이들 제품의 KS표시허가는 EMI관련 규격을 갖춘 품목에만 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품질원은 새 규격의 적용 시점과 관련 “분기별 고시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품목이 발표되며 그 때 적용시점도 함께 고시된다”고 말했다.

현재 EMI관련 한국산업규격(KSC 0262)은 지난해말 전기냉장고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전기분야 66개 KS표시허가품목 모두를 일시에 적용해야 하지만 EMI방지를 위한 장치가 생산원가의 2%를 차지하는데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품목을 우선 적용키로 했으며 2천년까지 모든 품목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의 EMI시험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품질원과 시험설비 사용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한해 시험수수료의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기술품질원의 KS품목에 대한 EMI기준 제정은 국제무역에서 전자파 장해에 대한 규

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이 강제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새로 제정될 EMI기준은 수입품에도 적용돼 수입품이 KS규격을 획득하려면 EMI규격을 갖춰야 한다.

〈'97년도 전자파장해 적용 대상품목〉

교류전자개폐기, 자동온도조절기, 형광램프

프용 자기식 안정기,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메탈헬라이드램프용 안정기, 환풍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납땀인두, 선풍기,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형광등 탁상 스탠드, 전기포트, 전기솥, 전기모발건조기, 전기보온밥통, 공기청정기, 음료용 전기냉수기, 전기탈수기, 전기가습기

산업디자인이 兵役免除추진

통상산업부는 산업디자인 분야를 전공한 병역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국내 대학에서 산업디자인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고급인력들이 병역혜택을 받지 못해 국내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 실시 대상학과에 산업디자인학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학과에 한해서만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정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통산부는 또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기능직인력에 대해 3년이상 근무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혜택대상에 디자인·포장 전문인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